

여수 거문도, 문화재청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공모 선정

오는 2024년부터 5년간 사업비 360억 투입

여수시(시장 정기명) 삼산면 거문도가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이 공모한 '2022년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은 근·현대기 역사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과 그 공간을 핵심 축으로 보존과 활용 가치를 높여가기 위한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는 여수

시를 포함한 9개 지자체가 응모해 1차 서면심사에서 4곳이 선정된 후 2차 현지조사, 3차 종합평가를 거쳐 삼산면 거문도가 단독으로 최종 선정됐다.

공모에 선정된 삼산면 거문도는 근대 문화유산의 집적도, 진정성, 역사성, 장소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근대 개항 시기 발생한 거문

도 사건과 서양문물의 유입, 내항 근대 가옥거리의 건축사적 가치, 의사당 건물 등 거문도에서만 볼 수 있는 근대 문화유산이 잘 보존돼 활용 가치 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모사업에는 당장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 5년간 사업비 36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보존기반 조성사업으로는 ▲학술조사연구 ▲역사문화공간 조성 ▲

등록문화재의 보수 및 복원 ▲역사경관 회복 등이 추진된다.

활용기반 조성사업으로는 ▲교육과 전시, 체험공간 조성 ▲운영 콘텐츠 개발 ▲편의시설 확충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근대 문화유산과 거문도 특유의 생태환경이 결합된 색다른 관광지 개발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빈 기자

순천-조직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협업

노관규 순천시장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이하 박람회)의 관람객 맞이와 체류형 생태정원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맡고 나섰다.

지난 8일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컨퍼런스홀에서 노관규 시장과 간부 공무원,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람회 핵심사업 협업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박람회장 조성, 800만 관람객 유치, 품격 높은 관람객 맞이 등 각 분야별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에 이어 순천시 연관사업 추진부서 협업상황에 대해 토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협업내용으로 대한민국 대표 저류지정원 모델 조성 방안, 전략적 홍보를 통한 관람객 유치방안, 박람회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도로 교통 종합대책 등이 논의됐다.

순천시와 조직위는 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주요 쟁점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논의하

는 등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박람회 준비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노관규 시장은 "2023정원박람회는 체류형 생태정원관광과 정원 후방산업 육성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표준 모델이 되게 할 것"이라며 "박람회 홍보뿐만 아니라 관람객에게 교통, 숙박, 음식 등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민운동본부 구성 등 시민 불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박람회 개최는 단순히 관광 수입을 떠나 순천시의 새로운 브랜드, 즉 일류 순천을 향한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는 일"이라며, "조직위와 모든 부서가 칸막이 없는 협업을 통해 업무의 완성도와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천제영 조직위 사무총장은 "오늘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시와 협업해 일류 박람회를 조성하고, 일류 시민과 함께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곡성군, 모기 유충 집중 방역

곡성군(군수 이상철)이 모기나 파리 등 감염병 매개 유충 발생 예방을 위해 모기 유충 구제 사업과 하절기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모기나 파리는 지카 바이러스와 말라리아 등 여름철 감염병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따라서 철저한 방역을 통해 유충의 서식과 성장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곡성군에서 실시한 유충 작업 조사에서는 유충 서식지 161개소 중 총 15개소(곡성읍3, 오곡면2, 목사동면1, 석곡면1, 옥과면1, 삼기면3, 입면1, 오산면3)에서 모기 유충이 발견됐다. 이에 곡성군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11개 읍면 161개소 유충 서식지에 유충 구제용 친환경 방역 약품을 정기적으로 투입했다. 보다 확실한 방역을 위해 앞으로 한 차례 유충 구제를 추가로 실시해 모기 발생과 번식을 차단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유충은 웅덩이, 대형 건물 지하공간, 아파트 지하실, 마을회관 정화조, 집수정, 목욕장 하수도, 공원, 숲, 대형 폐기물장, 폐타이어 야적장, 빈집, 공중화장실 등에 많이 서식하고 있다.

곡성군은 성충에 대한 하절기 집중 방역도 실시하고 있다. 5~6월에는 2주에 1회씩, 7~10월에는 1주에 1회씩 숲, 공원, 관광지에 분무 소독과 연막 소독을 시행하고 있다.

/심선성 기자



광양시는 포스코 1% 나눔재단과 함께 최근 광양국민체육센터에서 장애인 선수를 위한 e스포츠센터 개관식을 가졌다. 개관식에는 백성호 광양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천성현 포스코 1% 나눔재단 사무국장, 박종선 광양시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광양시 제공

광양시 장애인 e스포츠센터 개관

광양시는 포스코 1% 나눔재단과 함께 최근 광양국민체육센터에서 장애인 선수를 위한 e스포츠센터 개관식을 가졌다.

개관식에는 백성호 광양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천성현 포스코 1% 나눔재단 사무국장, 박종선 광양시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훈련 중인 장애인 선수들을 격려했다.

장애인 e스포츠센터는 리그오브레전드와 배틀그라운드 등 다양한 e스포츠 종목을 훈련할 수 있는 고사양 게이밍 PC 10대와,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훈련 환경 조성을 위해 이동용 슬로프, 손잡이 등을 포스코 1% 나눔재단에서 후원(5천만 원 상당)해 설치했다.

천성현 포스코 1% 나눔재단 사무국장은 "장애인 e스포츠센터 구축

을 통해 장애인 인재 육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다"고 밝혔다.

정흥기 관광문화환경국장은 "e스포츠센터가 장애인 선수들의 실력 향상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e스포츠 분야에서 장애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구례군, 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구례군은 다가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표본가구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 9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의 건강수준을 수집하는 통계조사로 지난 2008년부터 매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일련의 교육을 수료한 숙련된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 노트북에 탑재된 전자조사표를 이용해 조사대상자와 1:1 면접 방식으로 진행한다.

조사항목은 건강형태(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등),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 진단경험 및 관리수준, 예방접종, 삶의 질, 코로나19 관련 개인위생수

칙 등을 포함한 138개 문항이다.

조사결과는 내년 3월경에 질병관리청에서 공표할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생산된 통계자료는 지역사회건강수준 파악, 지역보건사업계획 수립과 평가 등 지역사회 보건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군민 모두의 건강한 삶을 위해 실시하는 중요한 조사이니 만큼, 대상자로 선정된 주민들께서는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은 최근의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감안해 조사원들에 대한 주기적 코로나19 검사 및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방문 전 발열체크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심건식 기자